

# 우리銀 압류 풀기로... 금호산업 유동성 위기 모면

## 산업銀과 '계좌 가압류' 해결원칙 합의 금감원 중재 대출채권 문제 절충 논의

금호산업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면서 불거진 유동성 위기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협의를 통한 해결책으로 가담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위크아웃)이 진행중인 금호산업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상황은 당분간 면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된 우리은행의 금호산업 대출채권 문제에 대해 절충을 벌였다. 채권은행들은 일단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금감원의 중재에 따라 가압류를 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의 대출회수를 위해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이 무조건 요구안을 거부해 압박용으로 했던 것이라며 가압류를 풀고 산업은행과 의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압류를 푸는 대신 일부 상환이나 장기분할상환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장기분할상환을 위해서는 금호산업의 자금사정 파악이 먼저라며 다른 채권기관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이 다른 채권은행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하는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 당국이 나선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베트남법인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설립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준 600억 원을 금호산업이 상환하지 않자 산업은행에 개설된 금호산업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했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이 KAPS 지분 50%를 매각해 721억 원의 자금이 생긴 만큼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기업개선작업 중인 만큼 모든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나 채권현금매입,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우리은행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금호산업은 위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수출중企 47% 환위험 무방비 노출 33%만 관리...보험가입 업체 6.6% 불과

수출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지만, 키코(KIKO) 트라우마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 환손실을 떠넘기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직접 수출하지 않는 중소기업들까지도 환율변동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정부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의 46.5%는 환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선물환 거래나 환변동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연구소는 덧붙였다.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24%가량이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며, 6.6%만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거나 가담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지역 다변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20% 정도였다. 수출 규모별로 보면 연간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58%가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출액이 500만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 환위험 관리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정부 및 금융기관들이 최근 환율취약 업체에 대한 자금 및 중소기업환관리 지원에 나서면서 환변동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수준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봄방학 경제교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및 학부모 40여명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2층 KJB금융박물관에서 롯데문화센터와 함께 '봄방학 경제교실'을 열었다. <광주은행 제공>

## 나라장터 계약이행 평가 전남도내 6개 업체 우수

광주지방조달청은 2012년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 실적평가결과 전남도내 6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업체는 대양콘크리트(담양), 대성산업(화순), 희망산업(무안), 일성기업, 신우콘크리트, 남양호안(이상 나주) 등 6개사다. 조달청은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수업체를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구매 권장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 아주 무역사절단 중진공 3월4일까지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성봉)가 광주시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관료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 광주광역시 아주 종합무역사절단'을 3월4일까지 모집한다.

무역사절단의 참가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광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5월19일부터 5월24일까지 아시아 2개 지역(미얀마, 양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파견한다.

수출참가품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효성건설·진흥기업 통합 브랜드 발표...주택사업 대폭 강화

효성건설과 계열사 진흥기업이 통합 브랜드를 도입했다. 건설 평가 부활을 위한 새 브랜드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Harrington Place)로, 영국 명문가문에서 유래했다. 효성은 24일 '명문가의 주거지'라는 의미를 가진 이 브랜드로 주택사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는 '해링턴 플레이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해링턴 타워', 고급 빌라는 '해링턴 코트', 복합건물은 '해링턴 스퀘어' 등으로 쓸 예정이다.

효성건설의 관계자는 "새 브랜드는 해링턴과 효성의 이니셜 'H'와 연결된다"며 "효성그룹의 역사와 전통성을 아파트 사업에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효성건설과 진흥기업은 올해 새 브랜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를 4500여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효성건설은 또 올해 매출 5400억 원, 수주 9000억 원을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도

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사업 참여를 늘려 주택사업 비중을 2012년 연평균 수주 1조7000억 원, 매출 1조4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계열사인 진흥기업도 재무구조 개선과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올해 수주 1조 원, 매출 5600억 원을 각각 목표로 잡았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최대한 빨리 위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탈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관리자협의회 회원 및 임직원들은 지난 23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사랑의 종집' 이사를 돕기 위해 157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관리자협의회 장애인 시설 '사랑의 종집' 15년 후원

새 보금자리 지원 공로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관리 주임 및 반장으로 구성된 생산관리자협의회가 장애인 재활시설 '사랑의 종집'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펼쳐 공로패를 받았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생산관리자협의회는 지난 23일 사랑의 종집에서 15년 동안 지속적인 후원과 최근 이사에 도움을 준 후원활동에 감사하는 의미의 공로패를 받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관리자협의회는 그동안 장애인 재활시설인 '사랑의 종집'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

는 장성군 남면 평산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 생산관리자협의회는 자체 후원금 모금과 기아차 광주공장 밀알봉사회의 지원을 받아 1570만 원을 건축 후원금으로 지원했다. 또 이번 이사에 맞춰 180만여 원 상당의 최신 노래방 기계를 기증했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생산관리자협의회 강정희 회장은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장애인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고 즐거운 생활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내 가족을 돌보는데 마음가짐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중여대생 87% 한국 화장품 구입

중국 여대생의 화장품 지출비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여서 국내 화장품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1년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75억 위안으로 1982년(29억 위안)의 537배 수준으로 커졌다. 1인당 연간 화장품 소비액은 2011년 현재 12달러로 한국의 8.8%, 일본의 4.9%에 불과해, 앞으로 화장품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23일 강원대학교 김중섭 교수(지역경제학)가 최근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명학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내 한류가 한국화장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중국 여자 대학생은 연간 1798위안을 화장품비로 썼다. 이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의 비중이 86.7%(1558위안)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5~15일 중국의 대학생·대학원생(여성 463명, 남성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남자 대학생은 연간 화장품비 325위안 중 78.7%(321위안)을 한국산에 지출했다.

로또복권 (제534회)	
당첨번호	2등번호나 숫자
10 24 26 29 37 38	32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215,763,250
2	5개 숫자+번호나 숫자 일치 43,078,071
3	5개 숫자 일치 1,541,506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얼기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기능이 몰려들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뿜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고 한다. 말미암음이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점 062-368-5075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쨍쨍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얼거리가 걸리거나 아프다